



아무것도 하지 않기

소년의 세계는 부모님과 몇몇 친구들이 전부였다. 어느 날 소년의 옆집으로 소녀가 이사를 왔다. 소녀는 부모님의 손을 잡고 소년의 집에 인사하러 왔다. 소년은 어머니 뒤에 숨어 소녀를 훑쳐보았다. 소녀 역시 낯선 어른들에 둘러싸여 어색한 듯 쭈뼛거렸다. 그날 밤 소년은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의 머릿속에서 누군가 맨도는 것을 경험했다. 다음 날 소년은 무언이 이끌리듯 대문 밖을 나섰다 그곳에 소녀가 있었다. 둘은 어색하게 인사했다. 그렇게 소년의 하루는 소녀와 잠깐 스치며 나누는 몇 마디 대화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에는 소년의 어휘가 턱없이 부족했기에 스치는 순간의 대화조차 곱씹었다. 하루는 친구들과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서는데, 소녀가 대문 앞에서 물끄러미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소년에게 쌀쌀한 밤하늘의 별들은 이제껏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시간을 알려주는 것 이상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 소년은 별이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소년의 세계가 확장되었다. 며칠 후 소년은 동네 뒷산으로 친구들과 놀러 갔다. 친구들은 괜히 나무를 타고, 지렁이를 찾고, 흙을 서로에게 뿌려댔다. 그러다 소년은 땅 위에 놓인 돌 하나를 발견했다. 소년은 슬며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눈을 뜨고 돌을 뚫어저러 바라보았다. 소년은 돌이 별처럼 생겼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조금 반짝거린다고 생각했다. 소년은 돌을 집어 주머니에 넣었다. 친구가 무어라 놀렸지만, 소년은 할 말이 없었다. 놀러대는 친구들을 뒤로 하고 산을 달려 내려왔다. 소년의 시야에 소녀가 들어왔다. 소년은 험뎅거리며 주섬주섬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돌을 꺼내어 소녀에게 주었다. 소녀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돌을 받았다. 소녀는 돌을 보고 소년을 보았다. 다시 소년과 돌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다. 소녀가 소년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모르다. 그러나 적어도 소녀의 손에 들린 돌은 돌 사이에 어떠한 의미로 존재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소년과 소녀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소년과 소녀를 위해 존재했다. 소년과 소녀가 없다면 실존하는 어떤 것도 의미가 없었다.

소년과 소녀의 세계에서 80년대 말~90년대 초의 역사로 시선을 옮겨보자. 세계를 영원히 지탱할 것 같았던 두 축 중 하나인 소비에트 연방과 동구권의 사회주의가 허망하게 무너졌다. 이로써 미국은 강대국이라는 명칭에 만족하지 않고 최강대국의 위치에 올라섰다. 잠시나마 '이데올로기'의 시대가 끝난 듯 보였으나, 오히려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세계를 잠식해 버렸다. 미국의 '레이건'과 영국의 '대처'로 상징되는 '신자유주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다소 무리가 있겠지만 이 이념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무한한 경쟁 속에 인류는 끊임없이 진보하며 풍요워진다.'는 것



아름다운 기록청춘을 소개합니다!

청년 임원영
서강대 경영과 컴퓨터 복수전공 졸업하였고 현재 영어강사이다.
소설 <누구나 듣는다>, <투겟즈>를 출간하였다.

이다. 사회주의의 몰락은 '신자유주의'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다. 직관적으로도 누구나 쉽게 납득할 수 있었다. 열심히 일하고 능력이 뛰어난 자가 그만큼의 대가를 받는다. 게으른 사람은 낙오되고 실패한다는 것이 얼마나 합리적인 결론인가?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모든 행동, 사물, 예술, 사상 심지어 인간 그 자신조차 경제적 가치로 치환시켜 버린다. 생산성이라는 개념과 전혀 결부될 수 없을 것 같았던 예술 영역을 예로 들어보자. 가장 비싼 그림이 가장 뛰어난 작품이며, 가장 많이 팔린 책이 가장 완벽한 문학으로 간주된다. 영화는 손익 분기점을 넘어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남겼는지를 기준으로 평가된다. 어느 새 존엄한 인간의 가치에 등급을 매기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대기업 CEO부터 서울역의 노숙자까지 인간은 모두 소중히 존재하다. 일반적인 상식을 지닌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말하고 그래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중심을 들여다보면 진정으로 그렇게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든 행동에 뚜렷한 목적을 강요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는 행위들은 무의미하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일은 죄악이다.

"그거 해서 뭐하려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아닐까 한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 역시 이 패러다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대한민국에서 소위 교회 일에 열심히 청년들의 삶은 무척 바쁘다. 그들은 하나님께 주신 일에 열정적이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빠짐없이 참석하고 주말은 교회에서 거의 산다. 교회에 행사가 있으면 비상이다. 잠을 줄이며 시간을 드리고, 안 입고 안 쓰며 절약하여 모은 돈까지 아낌없이 주님께 드린다. 대학생의 경우 부모님께 '부'를 상속받지 않은 이상 이 사회의 당연한 '정규직'으로 편승하려면 '토익' 점수와 '학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목적만으로 충분하지만, 교회의 청년들에게는 교회 일에 열심을 내느라 자신의 일에 소홀하면 안 된다는 소명의식이 슬며시 어깨를 짓눌러온다. 누가 그들의 열정에 감히 따지를 걸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기뻐하실 것이다.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네, 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치네 하는 우려도 많지만 적어도 내가 만난 청년들 대부분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자 하는 훌륭한 사람들이었다. 문제는 그러한 귀한 노력들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속에서만 성립되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끔씩, 아니 너무나 자주 놓친다는 것이다.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된 이후 커다란 양적 성장을 이룩했다. 그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개발독재 시대 한국 사회와 교회 성장의 결이 신기하게도 일치한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는 70,80년대의 가시적인 양적 성장에 도취되어 '인권', '가치', '당위', '실존' 등 진정한 삶의 의미들을 간과해 버렸

'청년연단'은 기록청춘의 고민과 갈등, 소리를 담은 창구입니다. 문화, 세상이슈에 대한 기록청춘의 파릇파릇한 생각을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 (이름, 이메일, 연락처) : editor.worldview@gmail.com

다. 그리고 한국 사회와 교회 모두 양적 성장이 둔화되어 가는 조짐을 보이는 지금, 교회는 어쩌면 하나님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른다.

앞만 보며 열심히 달렸고 그것을 전부라 생각했다. 달리고 달려서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폐가 터질 듯한 한계에 이르러, 지친 발걸음을 질질 끌면서 문득 떠오른 것이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뛰고 있지? 어디로 가는 거지?" 열심히 뛰기만 하면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좋은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공허함이었다. 이 제멋 뛰는 것밖에 몰랐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당혹감이 비참함으로 전이되기도 한다.

네덜란드의 역사학자이자 문화학자였던 요한 하위징아(Johan Huizinga)는 1938년에 <호모 루덴스>라는 책을 발표했다. 이 책에서 하위징아는 인간을 '놀이하는 존재'로 규정했다. 인간만이 즐거움을 추구하는 놀이라는 행위를 할 수 있고, 인간의 모든 사회적, 역사적 행동들이 놀이라는 개념 안에서 설명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을 하는 것도 놀이의 일환이며, 사회의 모든 규범, 양식 등도 놀이적 성격을 띤다. 심지어 인류의 가장 끔찍한 악습인 전쟁조차 경쟁하여 이기고자 하는 놀이에서 출발했으며, 종교적인 의식 역시 집단 놀이의 발현으로 본다.

이 책은 당시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거센 비판도 자연스레 뒤따랐다. 놀이라는 개념 자체를 절대적인 정의 없이 너무 포괄적으로 상정하여 인간의 행위를 모두 그 안에 끼워 맞출 수 있게 하였다든 것이었다. 하위징아가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나는 그 책에 일말의 진실이 묻어 있지 않을까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한다.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조금 불경스럽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와 놀이하고 싶으신 게 아닐까? 지금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그저 하나님을 누리며 그분과 시간을 보내길 바라시는 건 아닐까?

성경은 말한다. 현상학적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노력 자체가 죄라고 말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 하라." 이 구절을 비틀어 본다면, 그분 안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 생명을 위해 먹고, 마시는 가장 본능적인 행위조차 모두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다가 된다.

오늘 믿음의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다. 모든 열심을 잠시 내려놓고 가끔씩 아무것도 하지 말아 보라고.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눈을 감은 채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주님만을 묵상하라고. 그분의 크고 광대하심에 나의 실존이 얼마나 초라한지, 그분 없이는 철저히 아무것도 아닌 나를 느껴보라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영혼에 새롭게 새겨질 것이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을 때 역설적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달리셔야 했는지 깨닫게 된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뜨면, 이 세상이 더 멀리 더 넓게 보이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가 된다.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모든 것이 바뀌고 새로워짐을 느껴며 환희에 젖어 비상할 수도 있다. 마치 아무 쪽에도 쓸모없어 보이던 돌 하나가 소년과 소녀의 맞닿은 마음 속에서 이 세상을 바꾸었듯이. 